

AUTHOR 이근삼

TITLE 로마교의 연옥교리에 대한 개혁주의 비판

IN 고려신학보

vol. 17 (July, 1989): 11-27

로마교의 연옥교리에 대한 개혁주의 비판 (A Reformed View on the Roman Catholic Doctrine of Purgatory)

이 근 삼*
(교수, 조직신학)

종말론 연구에 있어서 소위 중간상태(intermediate state)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개인적 죽음에 있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하기까지의 잠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영원한 상태는 영적 몸(Spiritual body)을 가진 상태인 바 마치 현재 우리가 육신(Physical body)을 가진 전인적 상태와 같다. 그러나 개인이 죽은 후 부활시까지의 상태를 중간상태라고 이때까지 부르던것을 사실 그대로 분리된 상태(disembodied state)라고 함이 좋을 것 같다.

이 상태에서는 의인들이나 악인들이 의식적 존재로 있되 몸은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의식적 기쁨과 행복의 상태에 있고 악인들에게는 의식적 고통의 상태에 있다고 믿는다. 그 구별된 상태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믿는 연옥설과 중대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연옥설을 이 논문에서 취급해 보려고 한다.

먼저 연옥설을 말하고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살펴보며 그 다음에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I. 연옥(Purgatorium)은 存在하는가?

1. 먼저 연옥은 어떤 곳이라고 정의하는가?

로마교에서는 연옥(Purgatory)은 청결케 하는 과정(a process of Cleansing)을 뜻한다고 한다.

이 연옥에 대하여 그것이 장소나 아니면 상태냐 하는것은 논쟁점 중에 하나이다. 연옥설 주장자들은 불쌍한 영혼들이 과도기상태(a state of transition)에 있지만 반드시 어떤 특별한 장소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하기를 어렵다고 한다.

*고려신학교, 미국 카바넬트 신학교(Th. M), 화란 자유대학교(Th. D)
현, 신학대학원 조직대학 교수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연옥이 지옥과 좀 관계된 것(Purgatoruy is Somehow "connected with Hell")¹⁾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러나 로마교 신학자 Joseph Pohle박사는 그의 카톨릭 종말론 "Eschatology"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와같은 암시에 대하여 오히려 "그와같은 가능성으로 우리는 연옥이 천국과 관계된 것이라고 논할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조만간에 복된 거처에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²⁾라고 주장한다.

은혜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신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지는 않다고 한다. 어떤이들은 가벼운 죄들(venial transgressions=小罪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다른 이들은 저희 죄에 해당한 일시적 징벌을 아직 완전히 속(贖)하지 못하고 있다.³⁾ 그런 영혼들을 천국에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러운 자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 의해서 이 영혼들을 지옥에 건내주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한 중간상태가 있어서 가벼운 죄들을 정결케하고 또는 만일 용서받은 죄에 해당하는 세상적 징벌을 충분히 지불하지 못했을때는 그 받은 것들을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옥은 하나님의 은혜속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벼운 죄에서 완전 자유하지 못했거나 저희 죄에 해당한 속상을 완전히 지불하지 못한 자들을 임시적으로 징벌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⁴⁾

2. 그러면 연옥설에 대한 증명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연옥설은 제 4세기에 Aerius, 중세기에는 Albigeness, Waldenses 와 Hussites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부정되었던 것이다.

특히 칼빈은 카톨릭의 연옥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케하는 사단의 치명적 발명품"이라고 까지 불렀다.

이에 대하여 카톨릭에서는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것은 그의 칭의 교리가 잘못됐으니 당연하다고 하면서 만일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1)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Appendix, gu. 1, art. 2.

2) Joseph Pohle, Eschatology or The Catholic Doctrine of The Last Things, p. 75, Greenwood Press, 1971

3) Concil of Trident, Sess. IV, can. 30

4) Joseph Pohle, Ibid p. 77

그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고 죽음후에 속함받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1439년 Florence에서 채택된 The Decree of Union에는 연옥의 존재를 정의하기를 "사람이 사후에 그 영혼이 연옥의 고통으로 청결해진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고통에서 구조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자들의 대도(代禱), 예를들면 미사, 기도, 구제와 다른 경진한 사업들을 통해서 유익을 받아야 한다"⁵⁾고 하였다.

The Council of Trent에서도 본질적으로 이 정의를 반복하면서 말하기를 "카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교부들의 기록과 고대전통으로부터 성 공의회들과 이세계 교회대회에서 연옥이 있다는 것과 성도들의 대도로 인하여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⁶⁾

또한 교황 Leo10세도 "연옥은 정경성경에서 증명될 수 없다"는 루터의 주장을 엄히 정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연옥설을 강변하는 이유는

a. 연옥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적 근거가 제2마카비서 12: 43 이하에 있다고 한다.

거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유다(Judas)가 고기아스(Gorgias)를 도망치게 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와서 죽은 자의 시체들을 운반하려할 때에 죽은 자들의 옷 속에 그들이 얹니아(Jamnia)의 우상에서 도적한 보화가 있는것을 발견했다. 군인들이 이것을 도적했을때 그들은 우상숭배의 목적 보다는 강한 욕구심에 끌려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모세율법에 대한 명백한 범죄였다. 그것은 신 7: 25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울무에 들까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가중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군인들이 행한 짓은 반드시 죽을 죄가 아니었다. 그래서 유다와 그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은 후 그들을 위한 기도와 연보를 하고 죽은자의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희생제물로 은전 12,000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이다.

제2마카비서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유다와 그의 군인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은자들은 산 자들의 대도(代禱)을 통하여 가벼운 죄와 임시적 형벌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5) Ibid p. 78

6) Council of Trent, Sess XXV, cf. Denzinger Bannwart, n. 983

이 신앙은 역시 제2마카비서 12:45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죽은자를 위한 기도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상이다. 그것은 이 기도로 저희가 죄에서 풀려나게 되기 때문이다.”⁷⁾

로마교에서도 알고 있는것은 Protestant들은 마카비서가 가경(apocryphal)이라는 이유로 이 논의를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역사적 신빙성이 연옥신앙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로마교황들이 시작했던것이 아니고 기독교사대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간에 보통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⁸⁾

또한 신약의 증거로 마12:32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오는 세상”(αἰῶν μέλλων)은 분명히 죽은 후의 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에 따르면 사후에 용서받을 어떤 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어거스틴이 선호했다고 한다.⁹⁾

b. 초대교회 신앙이 죽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선을 하는 오래된 관습을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Tertullian은 죽은자를 위한 연례적미사를 말하고 있고 그가 한 과부에게 충고할 때 “그녀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명일마다 기도하고 그의 섬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였다.¹⁰⁾

이런 경건한 풍습은 카타콤에서 발견된 많은 묘비에 확인되고 있다. 거기에는 죽은자가 “화평과 휴식”을 위해서 저들의 살아있는 친구들의 기도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교부들은 이런 경건한 행동을 일으킨 연옥 교리를 분명히 가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St. Basil은 “영혼들의 정결을 위한 장소”와 “청결케 하는 불”의 존재를 확증했고 St. 어거스틴은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의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를 위해서 기도해 줄것을 요청했고 그녀의 영혼을 도와주는 가장 효과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쳤다.¹¹⁾

어거스틴은 또 그의 설교집 172편에 말하기를 “죽은자들이 거룩한 교회의 기도로, 경건한 회생으로, 또한 저의 영혼들을 위해서 쏟아주는 구제금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로마교에서는 초대교회로부터 1300년동안 연옥설을 믿어왔던 관습

7) ὁσία καὶ εὐσεῆς ἐπίνοια τῆς ἀμαρτίας ἀπολυθῆναι

8) Cf. Mayer, Das Judentum, p. 465 Ratisbon, 1893.

9) Augustine, De Civitate Dei, XXI, 24

10) see Pohle-Preuss, The Sacraments, Vol II, p. 376f

11) Joseph Pohle, Eschatology, Greenwood(Press p. 8)

이라고 주장한다.¹²⁾

심지어 신교에서는 연옥을 부인하므로 온 신학체계에 단층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도 Dr. Has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때 지옥에 가기에는 너무 선하고 천국에 가기에는 확실히 너무 악하다. 솔직히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교는 이 점에 분명하지 않고 연옥 부정설도 확인하는 상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¹³⁾

II. 연옥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로마 카톨릭교회가 연옥의 본질에 관해서 정의한 바는 아무것도 없으나 단지 거기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연옥적 고통을 당하며 징계를 통과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¹⁴⁾ 거기서 당하는 고통은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연옥의 고통도 이중적이어서 상실의 고통(poena damni)와 감각의 고통(poena sensus) 두가지가 있다.

1. 상실의 고통

연옥에서 불쌍한 영혼들이 당하는 상실의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된 시야를 빼앗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임시적 상실은 연옥의 상태의 본질을 이룬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심한 징벌이다.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가장 멀리 계신 창조주로부터의 분리됨의 의식은 심한 고통을 야기 시키고 그것은 더우기 가벼운 죄와 죄에따른 징벌이 통회, 고백, 기도, 구제 등 선한 일들을 통해서 과도기 중에서는 아주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들의 슬픈 조건이 고통하는 영혼을 실망하게 하거나 새로운 죄를 범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사실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심리를 기록한다는 것은 지옥에 정죄 받은 자들의 고통보다 조금도 쉬운것이 아니다. 지상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시야에서 일시적이거나 분리된 상태에서 당하는 영적고통에 대해서 적절한 개념을 가질 수는 없는것이다.

세상 모든 장애물을 잘라내고 영적사물들을 숨겨버린 감각세계의 피안에 놓여질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저희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숨으시고 떠나신다. 이때문에 저희들은 사랑의

12) Calvin, Institute III 5:10

13) Hase, Handbuk der Protestantischen Polemik gegen die römisch-Katholische Kirche p. 445 Leipzig, 1862.

14) Pohle, Ibid, p. 83

고민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St. Bonaventura가 생각한대로 “연옥의 가혹한 고통은 지상에서 알려진 어떤 포악한 고통도 지나칠 수가 없다”¹⁵⁾고 한다. St. Thomas도 말하기를 “연옥에서 가장 경한 고통도 이 세상에서 당할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한것은 Pohle은 반드시 받아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¹⁶⁾

그 이유는 이런 일에 확실성은 없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인정하기도 한다.

2. 감각의 고통

불쌍한 영혼들이 상실의 고통외에 감각의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심스럽다.

만일 이 감각적 고통이 있다면 이 부가적 징벌이 지옥의 불과 같은 물체적 매개체로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 Florentine Council에서 상실의 고통위에 어떤 적극적인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이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일치한 주장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사실은 Florentine Council에서도 Cardinal Bessarion은 연옥에 참으로 불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했고, 헬라 정교회는 오히려 연옥을 어렵고, 안개가 끼고 슬퍼하는곳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연옥의 본질로서는 내세울 것이 못되는 것이다.¹⁷⁾

b. 서방교회(로마카톨릭)에서는 연옥의 불이 물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신앙은 지옥의 불과 유사하다는 것이 보통 통념이었다. 그래서 “ignis purgatorius”(연옥의 불)라 한다. 이 견해는 고전3:11-15에서 왔다고 한다.

1)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위험한 교훈을 따름에 대하여

바울은 경고하여 말하기를 “이 닦아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돌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하였다.

15) Poble, Ibid, p. 84 cf. Comment. in Sent., IV dist. 20, art. 1, qu 2.

16) Ibid.

17) A. Bukowski, On the teaching of the Russian Schismatics, pp. 143f, Paderborn, 1911.

위의 말뜻에서 마지막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하였으니 연옥에 실제로 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한다.

2) 위의 성구는 어떤 교부들에 의해서 여자적으로 해석됐다. 즉 암부로스(St. Ambrose)는 말하기를 “바울이 ‘불가운데서’라고 할 때에 참으로 구원받을 것을 의미했으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한편 어거스틴은 이 어구 “불가운데서”를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지상환란의 불붙는 용광로”라고 했고 Origen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는 불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모든 썩인 불순물은 녹아지고 순금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Origen은 다른곳에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비유적으로 연옥의 불을 말하고 있다. Clement of Alexandria도 연옥을 “영적불”(a spiritual light)라고 하였다.

헬라동방교회 교부들은 연옥에 실재적 불의 존재를 믿은 이는 별로 없고 라틴로마교회 교부들중에는 여자적해석을 한 이들이 좀 있었다. 그예로 그레고리대제(St. Gregory the Great)는 사후에 연옥의 불꽃으로 사람들의 범과를 속할 것을 말했고 그 고통은 금생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것 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연옥의 불은 대심판 이전에 가벼운 죄를 속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방교회에서 이 전통적 확고한 논의에 충분한 동의는 한적이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olastics들은 연옥에 물체적 불이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무비판적이고 신빙성이 없는 환상과 개인적 계시를 너무 중요시하고, 화산이 있음을 보아서 연옥의 불의 실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효과에 있어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Cardinal Bellarmine은 말하기를 “만일 참 불이 없다면, 하나님 이 자기권능을 과시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어떤 더 무서운 것이 있을 것이다”고 한다.¹⁸⁾

3. 그러면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Clement of Alexandria는 가르치기를 불쌍한 영혼들이 연옥의 고통에 참고 순종하므로 저희들이 영적수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연옥에서는 어떤 공적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쌍한 영혼들에게 더욱 중요하고 실재적 문제가 되는것은 그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가벼운 죄와 용서받은 죄에 마땅한 징벌을 속죄하며 저희들의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는가 하는것이다.

18) Pohle, Ibid, p. 88.

a. 가벼운 죄의 용서를 얻는 세가지 방법

① 하나님의 편에서의 무조건적 용서로서 ② 고통과 그리고 속죄의 고행을 가지므로 ③ 완전통회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용서의 조건으로 완전통회하는 것을 택하시고 연옥에서 가벼운 죄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불쌍한 영혼들에게 용서의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완전회개(contrition)뿐이라고 한다.

b. 죄에 해당하는 임시적 징벌이 연옥에서 속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한다.

영혼은 속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음으로만 속할 수 있다. 이 고난은 공로가 되거나 속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불쌍한 영혼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중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다.

연옥에 머무는 기간(the duration of purgatory)는 전적으로 추측의 문제다. 어떤 이들은 길게 어떤 이들은 짧게 생각한다. 그런데 양극단의 중간쯤 될 것으로 추측한다.

무한히 공로로우신 하나님이 범과에 따라 죄를 벌하시고 모든 불결한 것들은 천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셔서 그의 자비하심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중재기도를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의 고난을 단축시키는 효과적 방법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한다. Dominicus Soto와 Maldonatus는 사람이 10년 이상 연옥에 머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받을 수 없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유산은 10년이 지나면 무효라는 것이 Alexander VII에 의해서 정식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이다.¹⁹⁾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견하신 대중들과 그들의 대도를 생각하셔서 죽은자의 영혼을 직접 풀어 주실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가벼운 죄들과 임시적 징벌들의 무거운 짐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 영원히 들어갈 영혼들의 경우에는 수 세기에 끝날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시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물론 연옥에서 가벼운 죄와 일시적 징벌을 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후에 연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존자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일반적 면죄를 보장하시거나 저회가 겪어야 할 환난이나 고난이 저들의 부족을 채우리라는 것을 경건하게 믿었던 것이다.

19) see Denzinger-Bannwart, p. 1143.

c. 개종후에 영혼에게 남아있는 악한 습관들에 대하여.

두 가지 악한 습관이 있는데, 감각적 기능에 속한 것: 술취함과 불결함 그리고 의지적 능력에 속한 것: 교만, 지나친 야망 등이다.

전자는 죽음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감각적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이 근절된다. 후자는 연옥으로 영혼과 동반되지만 영원의 문턱에서 이끌어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말 것이다. 만일 이런 습관들이 연옥에서 계속된다면 그들은 천국문에서 분명히 내던지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III. 죽은자를 구원하는 일

1. 성도의 교제의 교리

Trent council에서는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신자들의 대도와 주로 제단에 드리는 만으실만한 희생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15장). 이 중재기도의 유효성은 성도의 교제에 기초한다고 한다.

a. 성도의 교제라 할 때 신자가 서로서로, 축복받은 천사들, 천국에 있는 택자들,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다 같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초자연적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의 영적연합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투적이고 승리적이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한다.

b. 사도신경에 가르치기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지상에서의 가견적 교제와 동시에 전투적, 승리적 교회간에 축복의 불가견적 교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옥은 승리교회의 준비단계라고 한다. 이것은 언제나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이다.²⁰⁾

전될 수 없는 심연이 천국에 있는 복된자들을 마귀들로부터 나누어 놓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들이 초자연적 축복의 교제로 밀접하게 연합되어 그 깊은 본질과 원리를 거룩케 하는 은혜 또 신학적 사랑과 믿음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비록 카톨릭신자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전투적 교회에 속하였으며 성도의 교제에 속한 것이다.

천사들은 승리교회에 속했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한다. 지상에 있는 신자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특히 성화와 은혜 상태에서 전투교회가 드리는 미사, 기도, 선행 등에 참여한다. 그들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의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다. 동시에 그들은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도, 속죄부, 구제, 다른 선행 특히 저들을 위한 미사의 희생을 드리며

20) Cf. A. Harnack, Apostolic Glaubensbekenntnis, 9th ed, pp. 32f, Berlin, 1892.

로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상은 위에서 이미 말한것인데 여기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속죄의 일을 통해서 죽은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카톨릭교회가 주장하는것을 살펴 보자.

2. 죽은자를 위한 속죄교리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은 연옥설 교리에서 온 결과로서 따라오는 산 신자들의 대도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로마교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성경본문에서 확인을 얻고자 한다. 그것은 Tob.IV.18이다. “너의 떡과 포도주를 의인의 장례에 내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악인과 함께 먹지말라.”고 하는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여 저희 기억에 가난한 자에게 준 식사가 죽은자에게 유익하다고 반복적으로 가르친다.²¹⁾ 또한 이에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성구는 고전15:29이다.

이 구절에서 “죽은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죽은자를 위하여 대도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3. 그러면 죽은자를 위한 대도(suffrages)는 무엇인가?

이에 관하여 네가지 질문을 먼저 해본다면 ① 대도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는가? ②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이는 누구냐? ③ 어떤 식으로 죽은 자들을 유익케 하는가? ④ 누구를 통하여 대도는 드러지는가?

a. 먼저 세종류의 대도가 있다고 한다.

살아있는 신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세가지 대도는 미사, 기도, 선행이다.

b. 죽은자를 위해서 드러지는 대도는 천국에 있는 의인들에게나 지옥에 있는 정죄받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직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의인들은 인간의 보필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이것은 세례받은 유아들과 순교자들에게 진실하다. 어거스틴도 순교자를 위한 기도는 모욕이라고 한다.²²⁾

교부들의 교훈이나 초대 예배모범에 죽은 사도들, 순교자들,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제사들에 보면 그것은 천국에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다.

21) Pohle, Ibid, p. 94. Cf. Bellamine, De Purgetorio, I. 3.

22) Pohle-Preuss, Mariology, p. 145, Cf. Augustine, Sermon, 17.

c. 불쌍한 영혼들을 유익케 할 수 있는 산 자들의 대도를 알기 위해서는 선행의 공로적 가치와 속죄적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²³⁾ 선행의 공로적 가치는 성화의 은혜가 증진하는데 있고 그것의 변화에 있지 않다. 그리고 속죄적 가치는 마땅한 징벌의 종결에 있다. 이 속죄적 가치만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Pius IX는 “사랑의 영웅적 행위”(heroic act of charity)를 승인하고 찬성했다는 것이다.

d. 죽은 자를 위한 대도는 효과를 가지는 선행을 행하거나 다른사람을 선행하게 하므로 될 수 있다. 수행자 자신에게 공로나 속죄가 되어지지 않는 행위는 다른 이들에게 그런 공로나 속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교회의 예배적 기도는 천사들과 성도들, 특히 동정녀 마리아와 성 미가엘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유력한 중보자들이라는 것이다.

위에 진술한 연옥 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악한 자들을 위한 영원한 고통의 장소와 의로운 자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의 장소 외에 임시적 징벌의 중간상태가 존재한다. 그것은 가벼운 죄를 가지고 죽은자나 이미 죄를 용서 받고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할당된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또 가르치기를 비록 영혼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옥인 이 중간상태에 넘겨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도울 수는 없고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대도(suffrages)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²⁴⁾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 교리가 가지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연옥은 대부분의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점차로 정결케 되는 장소 또는 과정이다.

2. 이 영혼들은 저희가 지상에 살아 있을 때 범한 죄 때문에 임시적 징벌의 못다한 것을 다 고통으로 지불해야 한다.

3. 당하는 고통의 기간과 강도는 각각 다르다. 더 당하는 이도 있고 적게 받는 이도 있다. 당하는 기간도 길고 짧고 서로 같지 않다. 그것은 지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렸다. 또한 그것은 지상에 있는 신자친구들이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친구들이 드리는 기도, 저들을 위해서 사는 속죄표, 특히 저들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에 달려있다.

4. 지상에 살고 있는 친구신자들은 이 미사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

23) Cf. Thomas, Summa Theologica, Supplement, qu.71, aus.4.

24) Cardinal Gibbons, The Faith of Our Fathers, p. 210.

5. 교황은 연옥에서 어떤 종류의 법적권리(jurisdiction)를 행사한다. 예를 들면 속죄표를 보장함으로써 연옥에서의 영혼의 고통을 들어주거나 심지어 끝내 버릴 수도 있는것이 그의 대권이다.²⁵⁾

IV. 연옥설 교리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판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3권5장에서 10장에 연옥설에 대한 통박을 아끼지 않는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되어서 무시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나 연옥설은 큰 신성모독으로 구축된 것이며, 매일 새로운 신성모독으로 지탱되며 여러가지 중대죄악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고²⁶⁾ 할 만큼 이 연옥설은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단의 간계로 조작된 모종의 계시이며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 속죄를 구하려 한 것이다. 연옥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케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멸하며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²⁷⁾

1. 연옥설은 성경적 근거재시가 빈약하고, 성경적 증명을 얻지 못한다

a. Cardinal Giffons는 이 교리가 명백하게 구약성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 성구를 인용했는데 그것은 II Maccabees 12: 43-45였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연옥설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말하는것은 가벼운 죄(venial sin)가 아닌 우상숭배의 사함받지 못할 죄(mortal sin)로 죽은 군인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키비서로 말하면 가경(apocryphal)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이 마키비서를 정경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한것은 “유대인들은 마키비서를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율법, 예언서, 시편에 대해서 주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24: 44)고 증거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마키비서)은 침착하게 읽거나 듣는다면 교회에 무익하지 않다”고 한것뿐이다.²⁸⁾

마키비서는 제롬이나 키프리안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칼빈은 마카

25) see, William Hendriksen, The Bible on the Life Hereafter, p. 89, Baker Book House, 1977.

26) Calvin, 기독교강요 3:5:6

27) Ibid.

28) Augustine, Against Gaudentius, I xxxI, 38. see Calvin, 기독교강요 3:5:8

29) Calvin, Ibid.

비서 저자가 끝까지 “자기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고 간청하므로써(II 마카비 15: 39) 자신이 충분히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을 나타냈으니 그것을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않음이 틀림없다고 한다.²⁹⁾

b. 연옥설의 근거로 신약 마12: 32(막3: 28, 29; 눅12: 10)을 들어서 말한다. 거기에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하신 것인데 이것이 오는 세상에서 어떤 죄가 용서된다는 뜻을 암시한다고 하여 연옥설을 지지한다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이것이 결코 연옥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 오는 것인데 로마카톨릭의 연옥설에 따르면 이때에는 연옥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때인 것이다.³¹⁾

칼빈은 위의 성구에서 주님의 의도하신 바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성령이 주는 빛을 고의로 끄려고 힘쓰는 자는 죄인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는 이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끝날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끝날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며, 천국에서 모든 죄의 원인들을 깨끗이 제거할 것이다.”³²⁾

c. 신약에서 인용하는 두번 제 성구는 고전3: 12-15이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공력이 없으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것 같으리라.”

이것이 연옥의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 나타내는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불은 연옥설에서 주장하는 여자적 불이 아니다.

이 성구에 말하는 것은 중간상태가 아니고 “그 날” 곧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그 날에는 연옥은 이미 과거에 다 지나간 것이 되고 말것이다. 중간상태인 연옥에서 불로 더러운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연옥설은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잘못 해석한 것이다.

Chrysostom은 이 불을 환란이나 십자가로 이해하고 주께서 이런것을 통해서 그 백성의 육의 더러움에 남아 있지 않도록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생각

30) Lombard, “Sentences”, IV. XXI, Bernard, “Sermons on the Song of Song” IXVI. II.

31) William Heudriksen, Ibid. p. 90.

32) Calvin, 기독교강요 3:5:7

했다.³³⁾

칼빈은 이 불이 “성령의 시험”을 말한다고 하였다.³⁴⁾ 나무나 풀과 짙은 불에는 즉시 타버린다. 그와같이 인간의 교리적 조작품은 주님의 말씀 토대 위에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의 시험에 소멸되고 만다. 교리들을 시험할 분은 성령이다.³⁵⁾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3:15)고 한것은 그들이 무지와 망상이 주앞에서 용납됨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과 권능으로(성령의 불)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추악한 연옥설로 더럽힌다고 공격하였다.³⁶⁾

이외에도 신구약성경에서 연옥설의 지지를 얻으려고 사4:4; 미가7:8; 숙9:10; 말라3:2,3; 마5:22,25,26; 빌2:10; 계21:27등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그 성구들이 연옥설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³⁷⁾

2. 초대교회에 호소하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로마카톨릭교회에서는 연옥설이 초대교회로부터의 오래된 관습이라고 한다. 토마스는 죽은자를 위한 기도를 논하고 죽은자를 위한 면죄부도 논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성경에는 이에 대한 증거도 없고 성도들의 예를 보아서도 이런 관습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옹호한 Tertullian도 이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합법적인 전례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³⁹⁾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연옥설을 주장하고 죽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음 몇가지를 말한다.

- a. 그들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굴복한 것이다.
- b. 그들은 슬픔을 사랑의 증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는것.
- c. 이교도들중에 옛날부터 죽은 자의 의식이 있었고 매년 그들의 영혼을

33) Chrysostom, Homilies on Repentance, hom, VI.3

34) Calvin, 3:5:9

35) Ibid.

36) Ibid.

37) Handriksen, Ibid., 90

38)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Suppl 71:2-8, Qu 71:10.

39) Calvin, Ibid., 3:5:10, see Tertullian, “Exhortation to Christianity”, XI; “On Monogamy”, X.

위해서 정결케하는 의식이 있었다. 즉 죽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생에서 다른 생으로 넘어간다는 미신을 따랐다.

그런데 신자가 죽은자를 위한 아무런 의식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세상 평을 두려워했다. 이런 잘못된 경쟁심이 생겨나서 거기에다가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것이 교황권의 신성을 표시하는 것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주안에서 죽는자들은 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계14:13) 그이유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에 정으로 교회 안에 잘못된 기도 풍습을 장려해서는 안된다.

율법이나 복음에 죽음 사람을 위한 기도를 허락하는 말씀은 한곳도 없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성경적 신학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a. 신론과 인간론에 있어서 모순된다.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롬3:21-27; 7:14-25; 8:3)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시32:1,2; 롬7:24,25; 엡2:8-10; 딤후3:4-7; 뱀전1:19)이기 때문에 연옥설은 강조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것이다. 로마교회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죄값을 내고, 자기죄에 해당하는 임시적 징벌을 참고,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로 어떤 사람들은 이세상 생에서 자기 자신의 뜻 이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의 의무 이상의 선행의 공로가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교리는 인간 타락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다.(롬11:36)

b. 성경적 기독교와 크게 상충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히9:26)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하였다.(히9:12) 뿐만 아니라 그의 단번에 드린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히5:9; 10:14)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것이다.(요일1:7)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로마카톨릭의 연옥설의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는다.

c. 진전한 구원론과 연옥설은 상충된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롬5:1,18) 인간의 어떤 공로로 되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성

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살후2:13) 절대로 연옥의 전설적 불로 되는 것이 아니다.

d. 교회론에서 성경적 교리와 다르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것이나 이런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하심이라." (엡5:25-27)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로마카톨릭교회가 연옥설을 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등 너무도 돈을 사랑하는(too money minded)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크게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e. 끝으로 종말론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은 악한 자에게는 지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이다.

마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7:24-27: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자는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외에도 단12:2; 마25:1-13,31-46; 살후1:8-10; 계20:11-15; 22:14,15등 성경의 가르침은 종말에 관하여 연옥을 말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칼빈은 결론짓기를 로마카톨릭교회에서는 생각이 단순한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심각한 미신들이 너무 많고 괴상하여 어떤 고상함이 전혀 없다고 하며 세상사람들의 큰 무지를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영업하는 저질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⁰⁾

참 고 문 헌

1.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I
2. C. Chimiquy, *Fifty years in the Church of Rome*.
3. Cardinal J. Gibbons, *The Faith of Our Fathers*.
4. William Handriksen, *The Bible on the life Hereafter*, Baker Book House, 1977
5. Joseph Pohle, *Eschatology or The Catholic Doctrine of the Last Things*, Greenwood Press, 1971
6. Hans Schwarz, *On the way to the Future*, Augsburg Pub. House, 1972
7. 김경식, 생활교리—카톨릭신자생활안내서, 대진출판사, 1988
8. 박형룡, 교의신학 제7권—내세론, 은성출판사, 1973
9.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현장교령·선언문), 1969

40) Calvin, *Ibid*, 3:5:10